

논, 타작물 재배 전환 쉽지 않네

사업 신청 목표치 광주 21%·전남 82% 그쳐...전국은 60% 수준 신청 면적 규모 전남 1위...올 쌀값 상승으로 참여 유도 쉽지 않아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는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대해 광주·전남지역 모두 올해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 집계 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난달 말 기준 지역 신청 규모는 광주 79.4ha, 전남 9572.9ha로 집계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올해 광주지역 목표치인 369ha와 전남 1만1661ha에 대해 각각 21%·82%에 달하는 수치다. 전국적으로는 3만3000ha 신청하면서 목표(5만5000ha)의 60% 수준을 달성했다.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함으로써 쌀 생산량을 조절해 쌀값을 안정시키고 재고비용을 줄이려는 취지로 운영돼왔다. 당국은 올해 공공비축미 물량의 절반 수준인 17만5000t의 쌀을 시장격리 시키려는 목표를 세웠다. 신청 대상 3만3000ha에 논지 매입 2404ha, 간척지 신규입대 110ha, 신기술보급 사업 918ha 등을 보태면 올해 총 3만6000ha 농지에 대한 생산조정 효과를 예상했다.

농림부는 지난 1월22일부터 지난 달 28일까지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했다. 광주·전남지역의 올해 신청율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떨어졌다. 지난해 광주 타작물재배 목

표는 330ha, 신청 면적은 71.8ha로 올해와 비슷한 신청률(21%)을 보였다. 전남은 목표 1만 698ha 중 90%에 달하는 9711.4ha가 신청했지만 올해 신청률은 82%에 머물렀다.

지난해 타작물재배 이행 면적은 광주 58.5ha, 전남 8128.2ha로 신청 면적의 81%·83%만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의 올해 목표치 대비 신청 비율은 지난해보다 떨어졌지만 지난해에 이어 신청 면적 규모는 1위를 기록했다.

농림부는 "올해는 쌀값 상승 등으로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광주·전남지역을 포함한 전국에서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2017년 수확기에 15만3213원이었던 80kg 쌀 한가마니 값은 지난해 19만3568원으

로 올랐고 올해 6월25일 기준으로는 19만320원을 기록했다.

신청 농가들은 7월-10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타작물재배 이행 전수조사를 받고 이행 여부를 확인받으면 오는 12월 중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평균 지원액은 ha당 340만원이며 ▲조사료(ha당 430만원) ▲일반작물(" 340만원) ▲두류(" 325만원) 재배 ▲휴경(" 280만원)에 따라 지원금을 다르게 받는다.

농림부 관계자는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이 타작물을 원활히 재배·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지자체와 농촌진흥청·농협 등과 협력해 타작물 재배기술, 판로, 농기계 등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기간을 오는 11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주간 증시 전망

미중 무역협상 재개·남북미 정상회담 성사 나스닥 등 미국 3대 지수 사상최고치 경신 산업재 업종·통신장비 등 압축 대응 필요

세계인의 관심을 모았던 G20정상회의 이후 미중 무역협상이 재개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깜짝 제안으로 북미 정상회담 판문점회담과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됐다. 주요이벤트는 시장기대를 충족시키며 미국 3대 지수(다우·S&P500·나스닥)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코스피지수는 5주 만에 0.94% 하락 전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공식 중인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 두 자리에 비틀기파로 분류할 수 있는 인사를 지명하고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로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내정됐다. 글로벌증시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로 상승했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더 큰 악재로 인식했고 6월 수출증가율 부진 및 정부의 하반기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0.2% 낮춘 2.4~2.5%)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특히 지난 달 말 에치엘비의 임삼3상 실패설로 신약관련주가 불안한 상황에서 국내 대표적인 신약개발 선두업체인 한미약품이 3일 공시를 통해 파트너사인 안센으로부터 1조원대 신약수출 계약하지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하면서 투자심리가 더욱 악화됐다. 신뢰도가 크게 약화된 제약바이오주는 2분기 실적개선, 주요사 3상 임상성공 또는 대형 기술수출 등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는 리스크관리를 함께 업종 동반하락에 따라 실적이 확인되는 저평가주를 찾는 움직임이 필요해 보인다.

삼성전자는 5일 2분기 영업이익이 6조5000원의 잠정실적을 발표했다. 시장의 예상치 6조원을 상회하였지만 2분기 높은 환율효과와 일회성 이익을 고려한다면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3분기 메모리반도체 가격 반등을 확인하려는 모습이다. 또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제한 조치로 국내 반도체 기업 실적에 미칠 불확실성이 당분간 투자심리를 억누르는 상황이다. 다만 지난 6월 중순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고 있고 하반기 디스플레이와 휴대폰부품 수급개선이 예상되고 있다. 반도체 수급조절로 하반기에는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반도체 제조도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돼 추가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금요일 6월 미국 고용지표가 시장전망치를 크게 상회해서(비농업부문고용(계절조정) 16만명선상승-22만1400명) 발표되면서 일부 전문가들이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인하를 7월에서 9월로 미룰 수 있다는 예측보다는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무역협상을 위해 기준금세 절제를 주장하면서 다시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다.

무역분쟁의 당사자인 미국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중국중시도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정책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실적둔화, 반도체소재 수출규제, 제약바이오 계약취소 등 업종별 돌발악재로 시장반등 모멘텀을 찾기 어려운 모습이다. 이번 주에도 시장흐름에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주도주가 없는 종목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적극적인 시장 대응보다는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라 경기부양에 따른 소재·산업재 업종과 최근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는 통신장비, 자동차 등으로 압축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지점장)

올 벼 직파재배 면적 확대

농협전남본부, 5000ha로

농협 전남지역본부가 올해 벼 직파재배 면적을 5000ha로 늘릴 계획이다.

전남농협은 7일 "나주 동강농협 벼 직파재배 단지에서 충남·전북·전남 6개 농협 벼 생산 농업인 300명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행사를 지난 5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벼 직파재배는 육묘와 이앙을 동시에 해결하는 새로운 벼 재배방법으로 1ha당 73만원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남농협은 지난 2014년부터 나주시 동강면 북룡들녘 단지(5ha) 등 30ha를 시범단지 지정하고 지난해까지 대상 면적을 3700ha로 확대해왔다. 올해 목표는 전년보다 35%(1300ha) 증가한 5000ha로 잡았다.

이날 400ha 규모의 벼 직파재배 현장을 방문한 농업인들은 양원하 한국농업직파협회 박사와 이춘호 동강농협 팀장으로부터 재배 방법과 효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파와 기계 이앙 단지의 벼 생육상태를 확인했다. /백희준 기자 bhj@



충남·전북·전남지역 농업인 300명은 지난 5일 나주시 동강면 북룡들녘을 찾아 벼 직파재배 방법을 배웠다. <전남농협 제공>

장성 양파 24만t 첫 대만 수출

삼계농협 선적식

장성 양파 24만t이 대만으로 수출된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장성 삼계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지난 4일 양파 대만 수출 선적식을 갖고 양파수출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선적식에는 유두석 장성군수와 김태욱 삼계농협 조합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농협 측은 과육이 크고 단단한 장성 양파가 이번엔 해외 판로를 확보하면서 양파 농가의 시름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7월 초순 기준 전국 양파(20kg) 도매가격은 8800원으로 평년(1만6093원) 대비 45.3% 수준으로 떨어졌다.

김석기 농협 전남본부장은 "반토막이 난 양파 가격 저지를 위해 올해 산지폐기와 소비촉진행사 등 정부 및 지자체와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왔다"며 "이번 수출 선적식이 전남양파 수출 확대의 첫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카드 발급 받으세요"

광주시와 NH농협은행광주영업본부는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카드를 지난 1일부터 지역농협 16개 사무소에서 발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한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사업'은 농촌에 거주하고 농업인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 만 75세 미만 여성이 지원 대상이다. 1년에 1인당 10만원(자부담 2만원)이 지원되며 카드는 스포츠센터, 영화관, 도서관, 미용실 등 문화서비스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처

| | |
|-----|----------------------------------|
| 지역 | 발급처 |
| 동구 | 남광주지점 지원동지점 |
| 서구 | 서창농협 서창·백진지점 |
| 남구 | 대촌농협, 대촌농협 승촌간이·학송지점, 남광주농협 효덕지점 |
| 북구 | 북광주농협, 광주농협 동광·충효지점 |
| 광산구 | 송정, 평동, 임곡, 동곡, 삼도, 본량농협 |

광주시는 지난 5월까지 1차 대상자를 모집해 총 1289명의 대상자를 확정했으며 2차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

손해보험협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약속

가장 힘든 순간 함께 하겠다는 약속, 손해보험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비바람에도, 예상치 못한 아픔에도 당신이 일어설 수 있는 힘 바로 손해보험입니다.